

2019년 제1차 기획조정분과회의 운영 결과

I 개 요

- 일 시 : 2019. 4. 30.(금) 15:00 ~ 17:00
- 장 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소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위 원(9) : 경종수, 고승희, 백운성, 윤권중, 박길남, 윤정식, 정한칠, 이동우(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간사)
 - 관계공무원(1) : 정책기획팀장
- 주요내용
 - 2019년 제1차 분과별 정기회의 운영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
 -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아산시 발전과제 자유토론



II 회 의 결 과

- 분과별 논의과제 발전방안 및 아산시 발전과제 *분과 기 논의 과제 제외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 강화
 - 지역 내/지역 외 발생 원인, 바람 방향 등에 따른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등 데이터 확보 분석 필요

- 소각행위, 산불 등 자체 발생요인 제거, 계도·단속·홍보 강화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생활자원처리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노력 등)

○ 정책 수혜자를 최우선 고려한 교육·복지정책 계획·추진

- 계획 단계에서 대상자 의견 수렴, 수혜자가 원하는 정책목표 설정 등
- 교육 업무 소관 기관별 역할 재정립(교육청, 지자체 ...)
- 다문화 계층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마련

○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온천 활성화(회전교차로 중심에 온천 상징 조형물 설치 등 홍보 강화)
- 곡교천 상류~하류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 구상
- 은행나무길 보호(보호수종 또는 보호구역 지정)
- 충남경제진흥원 활용방안 마련
- 기타,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복합적 활용 방안 마련
- 프로스포츠 시민구단 유치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50만 자족도시 대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적 아젠다 도출 및 다각적 검토

* 예시

- ① 도시 규모에 적합 또는 필요한 시설물 구축(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
-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쇠퇴에 따른 중소기업 문제 해결방안 등

붙임 : 회의록 1부. 끝.

| 발 언 자 | 내 용 |
|-------------------------------|---|
| 간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기획조정분과 회의를 시작. • 이동우 부위원장의 인사말씀 후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음. |
| 부 위 원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총괄책임을 맡아 '세계속의 녹색첨단 도시'라는 아산의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었음. 당시, 삼성·현대 등 대기업과 연계하여 10년 후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내외적인 여건 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이하 생략) • 간사는 2019년 더 큰 시정위원회 운영계획과 2019년 제1차 정기 분과 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 간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명) |
| 부 위 원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분과회의 운영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음. • 먼저, 분과회의 주요내용, 의견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윤 권 종 생 활 안 전 분 과 위 원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분과는 시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문제를 근거리에서 다룰 것임. 특히, 지난 분과회의 종료 후 시 주관 미세먼지 대책 범시민 설명회에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인식을 같이한 바 있으며, 국가적·지역적 재난수준인 미세먼지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분야의 제안사항을 별도 배부한 서면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음. • 우선,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평가 받고 있으나 실천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것에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대부분 국가적, 대외적 요인(중국발생 60%, 국내 30%...)이라 하지만, 아산시 자체 발생원인도 5~1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체요인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 예로, 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논·밭·둑 태우기로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으나 계도·단속·홍보가 미흡, ② 산속 무속시설, 등산로 등 특정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산불 대응태세 확립, ③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홍보 강화(쓰레기 소각장 배출물질 기준치 이하,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 시내권 살수문제 등) 등을 들 수 있음. • 그 외,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아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방·탕정 주민자치회와 위원들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 할 것과 긴급차량 우선통행 시스템 구축(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연계 소방차 출동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 고 승 희 위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제한구역 관련 연구 진행 시 바람의 방향에 따른 악취 발생정도를 파악한 적 있었음. 바람의 방향에 따른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 후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

| 발 언 자 | 내 용 |
|----------------------|---|
| 박길남 교육복지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복지분과는 현장 전문가와 시민이 조화를 이루어 교육복지분야 공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열린 토론과 대안 제시가 활발히 이루어 짐. 또한 분과회의 이후 자체 모임을 2~3차례 추가 진행하였고, 월 1회 이상 현장 미팅을 추진 예정임. 취약계층, 긴급지원, 작은도서관, 노인일자리 창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 등에 시민의견 및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논의 하겠음. |
| 고승희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자가 원하는 정책을 수혜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제대로 설계하는 것,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 수혜자 의견수렴 및 참여가 중요. * 예시 :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시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정책목표 또한 산출하기 쉬운 단순목표(공연 00회)가 아닌, 청소년 어울림 공간 0개소 확대 등 수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 학교 관련 문제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경계가 모호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례가 많으니 해결방안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임. |
| 윤권종 생활안전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문화 지원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다문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 |
| 고승희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 등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며,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 이주노동자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원주민-다문화가정 자녀 간 갈등해결 노력 필요하며 외국인 유입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 윤권종 생활안전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해 음봉 지역에 스리랑카 사찰 이전 문제로 발생한 주민갈등 사례를 보며 답답한 마음이었음. 사찰 측은 아산을 거점으로 전국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정서적 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주민들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무조건 반대하였고, 행정에서는 갈등조정 및 중재 노력이나 지원이 전혀 없었음.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 필요. |
| 윤정식 문화체육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분과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우선, 공약 및 정책과제 관련, ① 은행나무길 활성화를 위해 관광스탬프, 입장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② 곡교천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도시계획, 공원...)의 전문가 참여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③ 1인 1생활체육 추진에 있어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 개선, ④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문화·체육시설 확대 등이 중점 논의 그 외, 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온천 활성화 방안(가족단위 료칸 문화 도입, 먹거리 연계), ② 지중해 마을 정체성 확립, ③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야간행사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짐. |

| 발언자 | 내용 |
|----------------------|---|
| 박길남 교육복지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 쇠퇴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 예를 들어, 회전교차로 중심에 꽃이 아닌 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 • 신정호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
| 윤생권 생활안전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2.2km 구간의 은행나무길에 365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었다고 하는데 10그루 정도 베어낸 것으로 파악. 은행나무길 일원 은행나무를 보호수종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아산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곡교천으로 단순 육공간이 곡교천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전반적인 공간 구상이 이루어져야 함. • 프로스포츠구단의 대외적·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필요(해체위기 아산무궁화축구단에 대한 아쉬움) • 은행나무길의 흉물인 충남경제진흥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건축 40년 경과, 재건축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인구 30만 도시에서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산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정읍시의 경우 정읍사 일대를 문화예술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특색화 |
| 박길남 교육복지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축구단이 1부 리그 승격 무산은 경찰청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였음. 구단 존속을 위해 선수 충원이 필수적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선수 1인당 2천만~2억원 상당 필요), 복합적인 사항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 현재, 상무팀 유치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아산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필요. |
| 윤생권 생활안전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시민구단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1~2부가 아니더라도 저비용의 시민구단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간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산이 자율편성이라고는 하나 국가사업 매칭사업비 등 부담 비율이 큰 관계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 특히, 무궁화축구단은 2019년 본예산 삭감으로 행정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며,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정한칠 경제농업 분과위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은 수도권과 인접하였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대기업(삼성, 현대)를 주축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있어 매우 살기 좋은 도시. • 특히, 시 전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산업단지 조성 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에 위원들이 한 목소리. • 시장 공약사항 중 친환경광역물류센터 건은 지역 내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 발 언 자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등은 아산시에서 중점 추진 예정인 아산시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토론. |
| 경 종 수 위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분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 분과 단위로는 현안사항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기획조정분과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음. 분과 단위로는 현재의 방식대로 분과별 소관 공약 등을 점검하고 기획조정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아젠다를 정하여 논의하였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면, 인구 50만 자족도시 대비 개선·보완이 필요한 시설, 정책 등 |
| 백 운 성 위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 경제 분야를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퇴로에 해결책을 고민하는 등 아젠다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 부 위 원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방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감사함. 분과 운영 외 기획조정분과의 독자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다루어야 할 아젠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함.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특히, 분과위원장님들께 감사하며, 기획조정분과도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간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